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정서지능의 영향

곽윤경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according to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Youn-Kyong Kwa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i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정서지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진행을 위해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B광역시 소재 일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고 Anova, Regression 분석으로 자료분석을 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60점 미만과 60점 이상으로 분류하여 두 그룹별 정서지능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능력 평균 60점 미만 그룹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감정표현, 타인조절요인이 유의한 정적 영향요인(설명력, 22.5%)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능력 평균 60이상 그룹에서는 자기감정표현, 동기화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설명력 33.6%).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교육에 있어 그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제안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대인관계능력, 정서지능, 자기감정의 표현, 타인통제, 동기화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For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126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a university located in B city from November 29 to December 16, 2019, and data were analyzed b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The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was classified into less than 60 and 60 or more. In the group with an average of less than 60 in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nursing students' self-emotional expression and control of others were significant positive effecting factors for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explanatory power, 22.5%). In the group with an average of 60 or mor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self-emotional expression and Motivation were significant effecting factors(explanatory power 33.6%).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an individual approach according to their level of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for nursing education to improve the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Expression of self-emotion, Control for others, Motivation

*Corresponding Author : Youn-Kyong Kwag(k100479@silla.ac.k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성인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폭발적 신체적 성장이 완만하게 완성에 이르는 시기이며, 이전까지 부모님과 선생님의 양육과 지도 아래서의 다소 수동적이었던 삶을 스스로 자신의 적성을 찾아 인생 목표를 선택하고 진로를 계획하는 자기 주도적인 능동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도록 요청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발달기적 변화는 개별적인 것으로 개인 내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개인의 성장과 성숙은 사회 속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볼 때 대학 생활은 가족이나 또래 중심의 제한적 관계에서 벗어나 확장된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제로 대두된다[1].

특히 간호대학생들에게 대인관계능력은 가족, 친구나 교수님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며 후에 간호사가 되어서는 병원 조직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하게 한다[2].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상자, 동료,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건강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간호 환경 속에서 맡은바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사람들과 두루 관계를 맺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들 동안 점검하고 함양해야 할 필수요소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오기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은 까닭에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기술을 익히지 못한데다가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를 접하지 못한다[2].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노출되고,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특성을 지닌 대상자나 보호자와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실습을 수행해야 하며, 1~2주간의 짧은 실습기간 동안 수시로 변화되는 임상 간호교육자에 적응하고, 비자의적으로도 형성되는 동료들과 팀웍을 이루어 집단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많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실제 이러한 대인관계 환경에 간호대학생들이 적응

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정도는 매우 격차가 커 이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확인하고 그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정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일상생활의 모든 인간관계는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하고[3],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4,5,6]. 그런데 간호대학생들은 타인의 정서나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는데 미숙하며, 이러한 정서지능의 미성숙함이 대인관계 뿐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설명된 바[3] 있어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해 정서지능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공감적 관심과 타인의 관점수용[7], 공감능력[8,9],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능력[10], 자기조절력[10,11] 등의 정서지능의 단일항목을 조사한 연구들로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정서지능의 다양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일반대학생들의 대인관계와 통합적 정서지능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동기를 제외한 정서인식, 공감, 정서조절이 대인관계변화의 87.5%를 설명하고, 높은 정서능력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며, 높은 정서지능과 높은 자존감이 삶의 성공과 정신건강의 양호함 간의 가설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12, 13], 이 연구들은 국외 연구들로 국내 간호대학생들의 정서지능과 대인관계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과 통합적 정서지능을 파악하고 이들의 대인관계능력수준에 따른 정서지능의 영향과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정서지능을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정서지능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과 정서지능의 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정서지능 영향과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정서지능의 영향을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B시에 소재하는 S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중, 만 18세~24세에 해당 되는 자, 문자해독 및 기록에 문제가 없는 자, 연구목적과 절차, 연구윤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4 program으로 양측검정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 표본크기를 산정한 결과치 107명에서 무응답률 20%를 고려해 128명으로 결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26명이었으며 수집된 자료 검토 결과,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미흡한 자료,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 8부를 제외하여 최종 120개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3 자료수집과 연구윤리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B광역시 소재 일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들에게 사이버강의실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과 익명성과 비밀보장, 연구결과의 제한적 활용을 설명하였고 연구참여는 개인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음과 연구불참 및 참여철회가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만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2.4 연구도구

2.4.1 대인관계능력

사람들과 두루 관계를 맺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김정규(1999)의 성신자기개념검사의 대인관계능력 하위척도를 이용하였다[14]. 16문항, 1점에서 6

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된 본 도구는 총점 50점을 “보통”, 20점 이하는 “낮음”, 80점 이상은 “높음” 수준으로 해석하며, 높은 점수일수록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반면 낮은 점수일수록 위축되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표현을 잘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개발 당시와 본 연구에서 각각 .89, .93이었다.

2.4.2 정서지능요인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Kim & Park(1998)의 도구를 활용하였다[15].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7점 likert척도로, 자기감정인식, 자기감정표현, 타인감정인식, 감정조절과 활용: 감정이입, 감정조절과 활용: 자기조절, 감정조절과 활용: 타인조절, 감정조절과 활용: 동기화 등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자기감정인식 .90, 자기감정표현 .70, 타인감정인식 .76, 감정이입 .87, 자기조절 .71, 타인조절 .66, 동기화 .87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자료의 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였다. 대상자 일반적 특성,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고,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 핵심요인은 다중회귀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대인관계능력, 정서지능 조사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21.19세, 여학생이 85.7%, 남학생이 14.3%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6.8%, 2학년이 41.5%, 3학년이 28.0%, 4학년이 18.6%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인관계능력은 평균 61.99, 정서지능 평균은 145.29이었고, 대인관계능력 평균 점수 60점을 중심으로 두 그룹을 나누었을 때 60점 미만은 80%, 60점 이상은 20%

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 Variables (n=120)

Variables	Categories (Range)	N(%) or Mean±SD
Age	18-24	21.19 ± 1.038
Sex	Male	16(14.3)
	Female	96(85.7)
Grade	1st	8(6.8)
	2nd	55(41.5)
	3rd	33(28.0)
	4th	24(18.6)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43-77	61.99±7.58
	less than 60	96(80.0)
	60 and more	24(20.0)
Emotional intelligence	92-181	145.29±16.33

3.2 일반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

연구대상자들의 일반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정서지능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은 여학생의 평균이 보다 높았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354, p=.724$)($t=.403, p=.688$). 그리고 학년별 대인관계능력 및 정서지능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196, p=.093$)($F=.279, p=.840$).

Table 2. Difference of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s	Division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M±SD	t or F	M±SD	t or F
Sex	Male	3.86±0.41	.354	5.32±0.72	.403
	Female	3.90±0.46		5.38±0.59	
Grade	1st	3.78±0.22	2.196	5.53±0.70	.279
	2nd	3.93±0.42		5.40±0.49	
	3rd	4.00±0.46		5.32±0.60	
	4th	3.70±0.57		5.34±0.82	

* $p<.05$, ** $p<.01$, *** $p<.001$

3.3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대인관계능력 평균 60점 미만인 그룹과 60점 이상인 그룹으로 나누어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인관계능력 60점 이하 그룹의 대인관계능력은 정서지능 전체평균($r=.529, p<.000$), 자기감정표현($r=.442, p<.000$), 타인감정인식($r=.248, p<.05$), 자기조절($r=.216, p<.05$), 타인조절($r=.333, p<.01$), 동기화($r=.309, p<.01$)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대인관계능력 60점 이상의 그룹에서 대인관계능력은 정서지능 전체평균($r=.720, p<.01$), 자기감정인식($r=.694, p<.001$), 자기감정표현($r=.694, p<.01$), 동기화($r=.817, p<.001$)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IC	EI	El ₁	El ₂	El ₃	El ₄	El ₅	El ₆	El ₇
Less than IC 60 group r(p) (n=96)									
IC	.1								
EI	.398***	1							
El ₁	.200	.792***	1						
El ₂	.442***	.629***	.383***	1					
El ₃	.248*	.701***	.473***	.315**	1				
El ₄	.199	.746***	.509***	.280**	.458***	1			
El ₅	.216*	.658***	.362***	.374***	.305**	.586***	1		
El ₆	.333**	.709***	.425***	.242**	.449***	.718***	.489***	1	
El ₇	.309**	.654***	.423***	.261**	.350***	.373***	.478***	.480***	1
IC 60 or more group r(p) (n=24)									
IC	.1								
EI	.720**	1							
El ₁	.694**	.751***	1						
El ₂	.810***	.703***	.368	1					
El ₃	.171	.795***	.442*	.382	1				
El ₄	.327	.802***	.509*	.423*	.750***	1			
El ₅	.166	.608**	.231	.156	.656***	.582**	1		
El ₆	.428	.799***	.371	.556**	.727***	.719***	.665***	1	
El ₇	.817***	.755***	.518**	.529**	.487*	.412*	.596**	.529**	1

* $p<.05$, ** $p<.01$, *** $p<.001$

- IC: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 EI: Emotional intelligence
- El₁: Recognition of self-emotion
- El₂: Expression of self-emotion
- El₃: Recognition of others' emotions
- El₄: Empathy
- El₅: Self-regulation
- El₆: Control for others
- El₇: Motivation

3.4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정서지능 영향요인

대인관계능력 60점 미만 그룹과 60점 이상 그룹별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60점 미만 그룹에서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 하위요인은 자기감정 표현($\beta=.405, p<.001$), 타인조절($\beta=.294, p<.05$)이었고, 이들의 설명력은 22.5%였다($F=4.942, p<.001$)(표 4). 반면 60점 이상 그룹에서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 하위요인은 자기감정표현($\beta=.681, p<.05$), 동기화($\beta=.715, p<.05$)이었고, 이들의 설명력은 33.6%였다($F=2.662, p<.05$)(표 5).

Table 4.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code	B	S.E	β	t	p
(constant)	73.349	.8.809		8.327	.000
Recognition of self-emotion	.745	.065	.083	.7.9	.480
Expression of self-emotion,	4.462	1.130	.405	3.947	.000
Recognition of others' emotions	.631	1.388	.050	.454	.651
Empathy	1.784	2.130	.127	.849	.398
Self-regulation	.619	1.147	.066	.539	.591
Control for others	3.574	.1.682	.295	2.125	.036
Motivation	1.489	1.074	.158	1.387	.169
$R^2=.282, Adj R^2=.225, F=4.942, P=.000$					
subordinate variable: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60 (n=96))					

*p<.05, **p<.01, ***p<.001

Table 5. Table 4..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code	B	S.E	β	t	p
(constant)	42.764	48.480		.882	.000
Recognition of self-emotion	12.833	6.601	.453	1.944	.070
Expression of self-emotion,	23.607	9.134	.681	2.585*	.020
Recognition of others' emotions	23.931	14.016	.506	1.707	.107
Empathy	16.277	13.404	.370	1.214	.242
Self-regulation	18.572	14.087	.435	1.318	.206
Control for others	-9.656	15.867	-.199	-.609	.551
Motivation	25.176	10.430	.715	2.414*	.028
$R^2=.538, Adj R^2=.336, F=2.662, P=.050$					
subordinate variable: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60 (n=24))					

*p<.05, **p<.01, ***p<.001

4.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평균 점수는 61.99로 “보통” 수준의 50점을 상회하였으며, 이는 수도권 대학의 20대 여자 대학생 및 여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1998)의 연구결과 63.51과 유사한 점수였다[14].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의 대인관계능력은 성별, 학년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학년 및 3학년이 1학년보다 대인관계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3]와 차이가 있는 결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검증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들의 정서지능 평균점수 145.29는 경영대학 학부생 및 현직 기업에 종사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의 평균점수 139.7보다 높은 점수이다. 사회 경험이 없는 여대생들이 연구대상자의 다수를 차지한 본 연구의 정서지능 점수가 현직 근무 중인 남자 대학원생이 다수 참여한 선행연구보다 높은 것은 자기정서자각, 정서조절, 정서활용 등 다수의 정서지능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된 Kweon(2014)의 연구결과[16]와는 대치되는 것으로서 추후연구들을 통해, 대학생들의 정서지능에 있어 성별, 전공별, 사회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의 범위는 43점에서 77점으로 나타나 도구가 제시한 “하(20점 이하)” 수준을 높이 상회하였고, 이에 연구대상자들의 대인관계능력 평균을 중심으로 60점 미만인 그룹과 60점 이상인 그룹으로 나누어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을 살펴본 결과, 두 그룹 모두 정서지능 총점, 자기감정표현, 동기화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도 높은 공통점을 보인 반면, 다음의 차이를 보였다.

대인관계능력이 60점 미만인 그룹(80%)에서 대인관계능력은 정서지능의 6개 하위영역 중 자기감정인식, 감정이입을 제외한 4개 영역(자기감정표현, 타인정서인식, 자기조절, 타인조절, 동기화)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경우,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전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인관계능력 60점 이상 그룹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자기감정인식, 자기감정표현, 동기화의 세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요인의 특성을 개인간 및 개인내 특성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의 다수 간호대학생이 해당되는 60점 미만 그룹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대인 상황에서 자기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알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격려하는 상호작용적 정서요인의 관련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았고, 60점 이상 그룹에서는 자기감정을 인식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며 자신을 격려하고 학업 등의 업무수행을 독려하는 개인 내적 정서요인의 관련이 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은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나를 표현하고 상대를 인식하며 자신과 타인을 고려한 정서조절 등 상호작용적 정서요인을 비교적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반면 대인관계능력이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간호대학생들은 이들의 대인관계능력이 정서에 대한 명확한 자기인식을 토대로 자기를 표현하고 자신을 독려하고 지지하는 요인들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이 인식한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17]를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그렇게 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들의 자기정서 인식상태를 점검하고 그 중요성과 방법, 활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대인관계가 활발한 학생들의 자기주장의 건강성을 점검하고 상호작용적 정서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요인들을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그룹별 정서지능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라 그들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의 영향요인과 영향정도가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능력 평균 60이미만 그룹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감정표현, 타인조절요인이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유의한 정적 영향요인(설명력, 22.5%)으로 나타난 반면, 대인관계능력 평균 60이상 그룹에서는 자기감정표현, 동기화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설명력 33.6%).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인식, 동기화, 공감, 정서조절이 대인관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18]에서 동기화를 제외한 정서인식, 공감, 정서조절이 대인관계변화의 87.5%를 설명한다고 보고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두 그룹 모두 자기감정표현이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임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정서표현을 반영한 간호교육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임상 간호실무자의 원형에 가까운 이론과 핵심간호기술을 익히며 간호과정을 통해 상황중심의 실무문제해결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요청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안전과 정확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엄

격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정서표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정서표현을 억압하지 않고 수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반면, 선행연구들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감[7, 8, 9, 19] 즉 감정이입이 본 연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이나 기분을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고 재경험해보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감정이입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감능력, 즉 감정이입이 높으면 타인의 감정과 요구를 잘 파악하여 반응할 수 있고 경청과 관심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에[9]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감정이입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관계능력 측정도구의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관계능력 측정도구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 꺼내겠다.”, “친구와 생각이 달라도 반대의견을 말하지 못한다.”, “내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 등 사람들과의 관계속 자기표현 즉 자기주장 특성이 보다 뚜렷한데 이러한 대인관계능력 도구의 특성으로 인해 정서지능 중 자기표현 하위요인의 영향이 보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은 정서지능의 통합적 관점에서 정서지능 하위요인 간 상호작용의 영향에 대한 고려이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정서지능 전반을 다루기보다 감정이입을 정서지능을 대표하는 독립변수로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감정인식, 감정표현, 감정활용의 포괄적인 정서지능의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간 상호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 간 영향이 상이한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에 대한 정서지능 영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 60점 미만, 즉 대인관계능력이 20점 이하로 낮지 않고 평균점수까지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의 개인 간 요인인데 반해 대인관계능력이 평균이상인 그룹에서의 대인관계능력 영향요인인 자기감정표현 및 동기화는 개인 내 요인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라 정서지능의 영향요인이 상이

하였다.

즉, 대인관계능력이 평균에 해당 되는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은 자기감정표현 및 타인조절은 대인관계 속에서 나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며 타인의 감정상태를 반영하여 나의 행동을 조절하는 정서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인관계능력이 평균보다 상회하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며 도전적 과제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어려운 경험을 극복하고 활동을 지속시키도록 스스로를 격려하는 정서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능력이 일반적 수준인 경우에는 대인관계 상호작용 상황에서 자기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며 타인을 배려하여 나를 조절하는 개인 간 정서요인을 반영한 대인관계 프로그램을, 대인관계능력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는 자기정서를 표현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켜 어려운 경험들을 극복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내 정서요인을 반영한 대인관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정서지능의 영향을 파악해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61.99)은 일반대학생들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정서지능(145.29)의 수준은 일반대학생들의 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을 평균점수인 60점 미만과 60점 이상으로 분류하였을 때, 두 그룹별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 60점 미만인 그룹(80%)에서 대인관계능력은 자기감정표현, 타인정서인식, 자기조절, 타인조절, 동기화 요인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대인관계능력 60점 이상 그룹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자기감정인식, 자기감정표현, 동기화 요인이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별 정서지능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

능력 평균 60점 미만 그룹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감정표현, 타인조절요인이 유의한 정적 영향요인(설명력, 22.5%)으로 나타난 반면, 대인관계능력 평균 60점 이상 그룹에서는 자기감정표현, 동기화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설명력 33.6%).

본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은 상이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라 정서지능의 영향요인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전략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수준별로 나누어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의 상관관계와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일 지역 간호대학 재학생으로 편의추출되었고 표본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REFERENCES

- [1] J. H. Park & Y. J. Cho. (2006). Romantic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7), 113-124
- [2] S. Y. Park & S. M. Koo. (2020). The Effect of Body Image and Self 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 158-168
- [3] H. A. Yu & W. Y. Song.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161-168.
- [4] H. K. Lee. (2012).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16(1), 11-20.
- [5] M. Jeong & A. N. Jang. (2009). The relation between self-concept and personal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A media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2), 669-681.
- [6] S. M. Yi, K. J. Cho & H. R. Ghim. (2009). The

-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Life Satisfaction o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6(3), 131-147.
- [7] H. S. Jeong. & K. L. Lee. (2012).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s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 2635-2647.
- [8] M. O. Chae. (2016).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95-103.
- [9] J. H. Oh. & Y. H. Hwnag. (2018). The Effects of Empath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3), 196-203.
- [10] J. H. Kim, G. N. Kang & S. Y. Na. (2016). Effect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7), 199-208.
- [11] J. H. Yoo, E. Y. Cheon & H. J. Kim. (2020). Effects of Empathy, Self-control, and Smartphone Dependenc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4), 82-90.
- [12] R. Bar-On. (2000).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Insights from the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In R. Baron & J. D. A. Parker(Eds.),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pp. 363-388). San Fran Cisco: Jossey-Bass.
- [13] Ciarrochi, J., Chan, A., Caputi, P., & Roberts, R. D. (2001). *Assessing emotional intelligence (EI): A critical evaluation*. In J. Ciarrochi, J. Forgas & J. D. Mayer (Eds.),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A scientific inquir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14] J. G. Kim. (1999). *Sungshin Self-Concept Test*, Korea Guidance
- [15] Y. J. Kim & S. H. Park. (1998).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 EQ *Asiaa Marketing Journal*, 1(1), 1-25.
DOI : 10.12811/kshsm.2017.11.2.129
- [16] S. H. Kweon. (2014). The Effect of the Big Five Personality Types,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Gender.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5(2), 45-64
- [17] H. W. Lee. & M. H. Lee. (2013). Impact of Mood Awarenes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xpressing Emotion of College Students on Self-Efficacy,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9(3), 181-200.
- [18] S. Mi Lee, E. H. Park, K. J. Cho & H. R. Kim. (2008). Does high Emotional Intelligence predict good social relationship?, *Proceedings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008*, 1(6), 82-83
- [19] S. Kang. (2020).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Humanistic Literacy and Empathy Abili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 35-43

곽 윤 경(Youn-Kyoung Kwag)

[정회원]



- 2005년 2월 : 연세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1년 2월 : 연세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정신장애, 가족교육, 간호교육

· E-Mail : k100479@silla.ac.kr